

지역화폐 발행 속도... 시설공단은 표류

제주도의회, 지난달 30일 제388회 임시회 폐회
지방채 발행계획안·해감 결과보고서 등 64건 처리
좌 의장 "원 지사 대권 도전보다 도민 신뢰 먼저" 일침

지역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제주 시설공단 설립 방향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계속 표류하게 됐다.

도는 올해 2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700억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승계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연내에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설립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대권행보 중인 원희룡 제주도 지사를 향해 일침을 날렸다. 최근 원 지사의 '송약 선언'에 대해서는 구두선에 그칠 우려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를 주문했다. 좌 의장은 "도지사의 대권행보를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제주에서 도민들로부터 성원을 받으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 공백이 없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

을 우선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원 지사의 '송약 선언' 발표와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염려도 크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향후 투자유치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좌 의장은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공직내부 공경·정령 적신호에 대한 강력한 개선대책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향해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격 기여가 미흡하다며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해 제주발전이 이바지할 것을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지난달 30일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5대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고은숙씨

도의회 청문 결과 '적격' 의견
임명장 전달... 임기는 3년간



청 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신원조회 등을 거쳤으며, 지난달 28일 실시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사청문회 결과 '적격' 의견을

받았다. 신임 고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0월 29일까지 3년간이다. 도는 고 신임 사장이 조직 혁신과 변화로 코로나19 위기에 봉착한 제주관광공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환경수도 실현·제주형 자치분권 완성 지원"

민주당 균형발전·행정수도 TF
제주서 마지막 지역순회 토론
양덕순 교수 "역량 강화 필요"

이날 기초연설에 나선 임문철 천주교 제주교구 경남주심당 주임신부는 "제주를 평화인권의 수도로 지정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승화한다는 의미에서 4:3의 완성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평화와 인권, 환경수도 제주'와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TF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송재호 국회의원 등 공동주최한 '평화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TF를 중심으로 한 마지막 지역순회 토론회 자리다.

발제를 맡은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의 특별자치도(사무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시 부분) 성찰을 통해 공과를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양 교수는 "최근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 지원에 대한 의문을 갖는 도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남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명칭 뿐이고 잃은 것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다"는 자조적 비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재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제주에서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에 가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제주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고,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해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제주를 연방수준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 중"이라며 이에 맞춰 제주는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TF 단장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예산과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양 교수는 특별자치도 성공을 통한 지방분권 완성 과정에 포괄적 배분방식 도입 및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의 분리적 접근 등의 사무배분과 지속적인 재정지원확보 확보 및 인사교류 확대 등의 특별기관 운영 개선, 지금의 행정시를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오은지기자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후순위... 손 댄나"

강민숙 의원 5분 발언서 지적
"6년간 갈등 골 깊어져" 질타
적극적 치유정책 추진 주문

2008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와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후 2011년 국유재산 무상 양여 근거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고, 19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선정됐지만 정부가 국방문제라는 이유로 '대체부지 제공양여'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관련 제주도정이

2008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와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후 2011년 국유재산 무상 양여 근거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고, 19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선정됐지만 정부가 국방문제라는 이유로 '대체부지 제공양여'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관련 제주도정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평화의 섬에 맞는 도민 화합을 위한 행보보다는 최근 6년 사이 평화의 섬 지정 의미는 정치적 이해도에 따라 매순간 변해왔고, 양두구육과 같은 행정 처리는 지역주민들 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어 버렸다"고 일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지부진한 평화의 섬 실현 사업인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5

분 발언에서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사업이 대통령 공약으로 어렵게 선택됐음에도 후순위로 밀려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갈등의 섬에서 치유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바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모습도 전적지 문화재 복원·정비 및 평화를 테마로 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관광 명소 개발이 목표다.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충센터

(내선)전기공사 기능인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 모집 초기 마감될 수 있음
구직자 / 재직자 / 영세사업자 등
- 7개월(09:00~16:00) 성실하게 수료하고
고용보험 가입가능 하신분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등 제외

교육기간
근시일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w.com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 옥 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의 **064.742.6234**
010.7599.6234

그랜드 보청기

호국보훈의달특별할인행사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때행 혜택입니다.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샅샅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꺾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총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뱅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